

#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스쿨 무료 운영

### 내년 1월 15일부터 5주간 매주 금요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서 27일까지 신청해야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네이버와 손을 잡고 로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스쿨'을 운영한다.

네이버가 보유한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 교육 역량과 대형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들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스쿨'은 2024년 1월과 함께 1월 5일부터 5주간 매주 금요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로컬 분야 예비창업자부터 디지털 마케팅

에 관심있는 창업가리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2월 27일까지이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주간 운영되는 교육에서는 네이버의 일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지속가능한 로컬브랜드의 이해에서부터 스마트스토어 등 디지털플랫폼 활용 노하우, 성장마케팅 전략 전반에 대한 교육과 코칭으로 구성됐다.

로컬 스타트업이 가장 취약한 디지털 마케팅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플레이스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량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이후에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참가자 성과공유회, 브랜드 스토리텔링 컨설팅, 마켓데이 개최, 사업자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스쿨'을 확대해 이밖에 중점 교육하는 디지털 마케팅 외에도 브랜드 스토리, 디지털 콘텐츠 제작, LIPS 투자 등까지 연계하는 전방면의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에는 이들과의 협력 MOU 체결을 하겠다고 계획

이다.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스쿨'의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20-89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디지털 마케팅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네이버와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는 더 넓은 영역까지 지원하여 지역 스타트업이 단단한 로컬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연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로컬 스타트업의 성장과 품목상권의 스톱 비즈니스의 혁신성을 위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며, 전병형 라이온 육성을 위해 전북도와 대기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경위, 웹툰 우수작 선정·시상

### SNS 홍보용 이미지 콘텐츠 발굴 통한 인지도 향상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국민 자치경찰 웹툰 공모전에서 수상한 대표 수상자 4인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도민과 가까이, 우리 곁에 든든한 자치경찰'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8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10점이 선정됐다.

대상의 영예는 '우리는 자치경찰 위원회!' 라는 작품에 돌아갔다. 이 작품은 기존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자치경찰제의 역할과 장점을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마스코트 캐릭터인 '안전이와 행복이'를 활용해 설명했으며, 특히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강조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치안행정에 대해 잘 소개하고 있어, 심사위원들로부터 주제를 잘 반영했다는 평을 받았다.

향후 수상작은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및 에스엔에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홍보계정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2023 유망중소기업 12개사 선정... 현판 수여식

전북도는 14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12개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은 매년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각종 평가를 거쳐 선정해 기업 관련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49개 기업이 신청해 약 4: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11월 30일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를 통해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최중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2023년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내소남씨앤디(대표 이준) △(주)더저길(대표 박병영) △(주)모션디자이너(대표 최원환) △(주)삼영메탈(대표 박승현) △(주)성가정식품(대표 김중덕) △(유)에이치와이테크(대표 오백순) △(주)우리비앤비(대표 박상협) △우성공업(주)(대표 원명철) △(주)이공기전(대표 국명호) △제일유리(주)(대표 장호성) △조일금속공업(주)(대표 정운도) △(주)텔로스(대표 황근별) 12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5년간 인증받게 되며, 도 경영안정자금이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 이차보전도 최대 3%(일반기업 2%)까지 우대 지원되며, 또한 보증보험료 할인, 돌봄·도약기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재훈 기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인 김제시 황산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 김종훈 경제부지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 선제적 대응 주문 당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인 김제시 황산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익산과 김제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직접

살피며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주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김제시 관계자들과 함께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최일선 방역현장에서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과할 정도의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도,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력

### 도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 구성 협의체 회의 개최

전북도는 14일 전주대학교에서 전북도의회 및 도내대학 국제교류원장,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유학생 유치 공동사업 발굴, 유학생 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전북도는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본 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북도는 협의체를 통해 도내 대학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다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실적과 2024년도 유학생 유치 계획을 공유하고 더 나은 실행방안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전북도의 가장 큰 변화는 도와 대학 간 소통 강화다. 그간 도는 유학생 유치를 대학의 영역이라고 판단해 역할이 미비했으나 올해는 대학과의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2월, 도내 대학 국

제교류부서를 대상으로 '23년도 전라북도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으며, 5월에는 중국 충칭지역을 출장 후 출장결과를 대학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7개국 27명의 SNS 활용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JB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구성, 9월 14일 위촉식을 갖고 도내 대학 및 전라북도 유학생 유출 등으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본 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된 △방학기간 단기 연수생 유치 프로그램 운영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모집 홍보 책자 제작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 △교육부 해외 인재특화형 특구 지정 대응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재훈 기자

**1~2월(방학특강) 과정**

스피치·웃음코칭·긴장해소

○ 현대인의 필수과목에 참여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① 매주 1회 야간수업                      ② 도민 누구나 가능  
③ 특강 등록금 15만원(2개월분)        ④ 전문강사지도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전화 : 231 - 6669, 010 - 7304 - 5665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및 송년문화공연**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에서 합동으로 장애인복지, 인권, 문화예술참여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24회 행사를 엽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①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② 장소 :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③ 주요행사 : 개회식, 물품전달식, 송년문화공연, 행운권추첨 등

문의 : 286 - 6678, 팩스 : 287 - 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